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5월 28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농기원, 제주산 메밀 활용한 즉석죽 등 간편식 개발 착수-2면	미래농업육성과	제민일보
○	제주 메밀 즉석죽 등 간편식 제품 개발-10면	미래농업육성과	제주매일
○	건강과 편의성을 담은 제주 메밀 간편식 개발 나선다-6면	미래농업육성과	삼다일보
○	병해충 강하고 수확량 많은 맥주보리 '새호품' 농가 보급-4면	원예작물과	제주일보
○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 고품질 원료 합격점-10면	원예작물과	제주매일
○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 농가 보급-6면	원예작물과	한라일보
○	농업기술원, 농번기 마늘 수확 봉사활동 -12면	총무과	제주매일
○	제주도농업기술원 학생4-H연합회 조직 -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서귀포농기센터, 부산물처리 평가회-6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주간농업농촌소식-6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분주한 농민들-4면	-	삼다일보
○	제주서 작업 중 부상 잇따라...2명 중상 -4면	-	한라일보
○	농가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14면	-	제민일보

(제민일보: 2026년 5월 28일)

○ 농기원, 제주산 메밀 활용한 즉석죽 등 간편식 개발 착수-2면

농기원, 제주산 메밀 활용한 즉석죽 등 간편식 개발 착수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건강 지향과 간편식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제주산 메밀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앞서 제품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 4월 소비자 3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식품 소비 트렌드와 메밀 가공제품 수요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최근 식품 구매 경향은 건강·편의 중심의 소비가 52.9%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배달 구매가 20.6%로 뒤를 이었다.

메밀 가공제품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제품 다양화(42.4%)와 쓴맛 개선(20.8%)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자체 개발한 메밀 분말을 활용해 메밀 즉석죽과 가래떡 등 간편식 개발에 착수했다.

5.28.
제민일보 2
김우영 기자

(제주매일: 2026년 5월 28일)

○ 제주 메밀 즉석죽 등 간편식 제품 개발-10면

제주 메밀 즉석죽 등 간편식 제품 개발

도농업기술원, 쓴맛 줄이고 기능성 높은 분말 활용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건강 지향과 간편식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제주산 메밀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에 나선다.

이번 연구는 제주 메밀의 소비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원물 소비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업기술원이 지난 4월 소비자 3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건강·편의 중심 소비(52.9%)와 온라인·배달 구매(20.6%)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자체 개발한 메밀 분말을 활용해 메밀 즉석죽과 가래떡 등 간편식 제품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메밀 가공소재 연구를 통해 개발된 메



밀 분말은 쓴맛은 적고 항산화 성분인 루틴 함량이 높은 게 특징이다.

또한 점성이 우수해 식감이 부드럽고 쉽게 굳지 않는 장점도 있다.

강다영 농업연구사는 “건강과 간편함을 중시하는 소비 흐름에 맞춰 제주형 메밀 가공제품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제주산 메밀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5.28. 제주매일 10차

(삼다일보: 2026년 5월 28일)

○ 건강과 편의성을 담은 제주 메밀 간편식 개발 나선다-6면

건강과 편의성을 담은 제주 메밀 간편식 개발 나선다

제주 메밀(사진)로 만든 간편식이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건강을 지향하고 간편식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제주산 메밀을 활용한 간편식 제품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자체 개발한 메밀 분말을 활용해 메밀 즉석죽과 가래떡 등이 개발됐다.

해당 분말은 메밀 가공 소재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결과 쓴맛이 적고 항산화 성분인 루틴 함량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점성이 우수해 식감이 부드럽고 쉽게 굳지 않는 장점도 있다.

농업기술원은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해 물만 부으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메



(제주도 제공)

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농업기술원은 간편식 제품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4월 소비자 3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식품 소비 트렌드 및 메밀 가

밀 즉석죽과 개별 포장 형태의 메밀 가래떡을 개발해 소비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양금 가래떡도 함께 개발해 메밀 가공 제품의 소비층 확대와 시장성 강화

공 제품 수요를 분석했다.

트렌드 조사 결과 최근 식품 구매 경향은 건강·편의 중심 소비가 52.9%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배달이 20.6%로 뒤를 이었다. '건강'과 '간편함'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셈이다.

메밀 가공 제품의 개선 요구 사항은 제품 다양화(42.4%), 쓴맛 개선(20.8%)이 꼽혔다.

강다영 농업연구사는 "제주 메밀의 소비 확대와 부가 가치 향상을 목표로 원물 소비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과 간편함을 중시하는 소비 흐름에 맞춰 제주형 메밀 가공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제주산 메밀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5.28. 삼다일보 6

김현중 기자 tazan@samda일보.com

(제주일보: 2026년 5월 28일)

○ 병해충 강하고 수확량 많은 맥주보리 ‘새호품’ 농가 보급-4면

병해충 강하고 수확량 많은

맥주보리 ‘새호품’ 농가 보급

기존 품종보다 병에 강하고 수확량도 20% 이상 높은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이 제주 농가에 본격 보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 현장 실증 결과, 기존 품종인 ‘호품’보다 수확량과 품질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호품’은 기존 ‘호품’과 병 저항성이 강한 ‘백호’를 교배해 개발한 품종이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진행된 제주지역 적응시험 결과, ‘새호품’은 농가의 주요 피해 요인인 흰가루병과 보리호위축병에 강한 특성을 보였다. 10a(약 300평)당 수확량은 476kg으로 조사돼 기존 ‘호품’ 대비 21% 높은 생산성을 기록했다. 5. 28. 제주일보 4면

(제주매일: 2026년 5월 28일)

○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 고품질 원료 합격점-10면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 고품질 원료 합격점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 높고 품질 우수...만족도 83.2점

골칫거리 흰가루병에 강한 특성...2030년 100ha 확대

기존 품종보다 병에 강하고 수확량도 20% 이상 뛰어난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이 제주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새호품’의 현장 실증 결과 기존 품종인 ‘호품’보다 수확량이 높고 품질도 우수해 맥주 원료로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새호품’은 기존 ‘호품’과 병에 강한 ‘백호’를 교배해 만든 신품종이다. 맥주 특유의 제조 특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병 저항성과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 지역 적

응시험 결과 ‘새호품’은 농가의 골칫거리인 흰가루병과 보리호위축병에 강한 특성을 보였다. 10a(약 300평)당 수확량은 476kg으로 조사대 기존 ‘호품’ 대비 21% 높은 생산성을 나타냈다.

또한 천립중(남알 1000개의 무게)은 42.1g으로 무겁고 정립률(건전한 남알의 비율)이 우수했으며 맥주 추출률은 83.4%로 기준치(80.5%)를 웃돌아 고품질 맥주보리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새호품’의 현장 적용성과 보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0.2ha 규모로 시작한 농가 실증연구를 올해 0.5ha 규모로 대폭 확대 추진했다.

5.28. 10
제주매일 10
박성일 기자

(한라일보: 2026년 5월 28일)

○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 농가 보급-6면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 농가 보급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기존 품종 대비 병에 강하고 수확량도 뛰어난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의 농가 보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27일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의 현장 실증 결과, 기존 품종인 '호품'보다 수확량이 높고 품질도 우수해 맥주 원료로서 합격점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제주 지역 적응시험을 진행한 결과, '새호품'은 농가의 골칫거리인 흰가루병과 보리호위축병에 강한 특성을 보였다. 10a(약 300평)당 수확량은 476kg으로

조사돼 기존 '호품' 대비 21% 높은 생산성을 보여줬다. 또한 낱알의 무게와 상태도 우수했으며 맥주 추출률은 83.4%로 기준치(80.5%)를 상회했다.

농업기술원은 '새호품'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 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종자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2026년 10ha 규모 보급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ha 수준으로 재배면적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5. 28.
한라일보 6

(제주매일: 2026년 5월 28일)

○ 농업기술원, 농번기 마늘 수확 봉사활동-12면



농업기술원, 농번기 마늘 수확 봉사활동

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지난 26일 한경면 용수리 일원에서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 수확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5. 28.
제주매일 12

(제민일보: 2026년 5월 28일)

○ 제주도농업기술원 학생4-H연합회 조직-9면



제주도농업기술원 학생4-H연합회 조직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2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학교4-H 지도교사 및 학생회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4-H연합회’를 조직하고 제주 농산물 키링 만들기 과제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학교별 인사 소개를 시작으로 임원 선출 및 학생4-H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5.28. 제민일보 9

(제주일보: 2026년 5월 28일)

○ 서귀포농기센터, 부산물처리 평가회-6면



서귀포농기센터, 부산물처리 평가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지난 22일 센터 회의실에서 ‘2026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평가회를 가졌다. 5. 28. 제주일보 6

(제주매일: 2026년 5월 28일)

○ 주간농업농촌소식-6면

주간농업농촌소식

주간농업농촌소식 2026-19호(2026. 5. 22.)

농업현장 중심 실용·혁신 농업기술 개발·보급

병해충 예방의 시작은 철저한 예찰,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합시다

□ 노지감귤

- 여름비료 시용: 5월 하순~6월 상순, 1년동안 주는 양의 질소 20%, 칼리 40%
- 병해충 방제: 잿빛곰팡이병, 꽃 70% 낙화 시 적용 약제 살포
 깍지벌레류, 철저한 예찰로 유충 발생시기에 적용약제 살포

□ 키위

- 신초관리: 가지와 잎의 생육이 빨라지는 시기로, 적심·전정·가지유인 실시
 - 가지유인: 발육지가 40~60% 경화될 때 기부에서 가지비틀기, 정부압박
- 적과: 꽃잎이 떨어진 후 10~15일 경(수분 후 2주 이내) 소형과 및 기형과 위주 1차 적과

□ 단호박

- 줄기유인: 아들줄기 2~3본을 양쪽으로 유인하여 배치
 - 아들줄기가 4개 이상 발생한 경우, 건실한 2~3본을 남기고 제거
- 웃비료 시비: 고랑에 NK비료 27kg/10a을 2회에 나누어 시비(전면살포 금지)

□ 만생양파

- 관수: 구 비대가 왕성한 시기로 15일 간격으로 물을 주되, 자연 강우량 및 배수환경 고려
 (다습할 시 습해, 병해 발생 위험 있음)
- 병해충 방제: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등 예찰·방제
 - 수확시기 작물보호제 살포는 안전사용기준을 고려하여 결정

< 위기를 기회로! 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 >

- 표준시비: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 결과
 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 △양배추 43%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여도
 수확량·상품성 차이 없었음

시비처방서
발급방법



5. 28.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 제주매일 6

(삼다일보: 2026년 5월 28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 농업·농촌 소식

병해충 예방의 시작은 철저한 예찰,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합시다

▲노지감귤
 △여름비료 시용=5월 하순~6월 상순, 1년동안 주는 양의 질소 20%, 칼리 40%
 △병해충 방제
 - 잿빛곰팡이병, 꽃 70% 낙화 시 적용 약제 살포
 - 각지벌레류, 철저한 예찰로 유충 발생시기에 적용약제 살포
▲키위
 △신초 관리=가지와 잎의 생육이 빨라지는 시기로, 적심·전정·가지유인

실시
 - 가지유인=발육지가 40~60% 경화될 때 기부에서 가지비틀기, 정부압박
 △적과=꽃잎이 떨어진 후 10~15일 경(수분 후 2주 이내) 소형과 및 기형과 위주 1차 적과
▲단호박
 △줄기 유인=아들줄기 2~3분을 양쪽으로 유인하여 배치
 - 아들줄기가 4개 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한 2~3분을 남기고 제거

△웃비료 시비=고랑에 NK비료 27kg/10a을 2회에 나누어 시비(전면살포 금지)
▲만생양파
 △관수=구 비대가 왕성한 시기로 15일 간격으로 물을 주되, 자연 강수량 및 배수환경 고려(다습할 시 습해, 병해 발생 위험 있음)
 △병해충 방제=노균병, 잿빛곰팡이병 등 예찰·방제
 - 수확시기 작물보호제 살포는 안전사용기준을 고려하여 결정
▲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위기를 기회로! 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

▲표준시비=토양검정을 통한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 결과=관

행 대비 비료 사용량 △양배추 43%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여도 수확량·상품성 차이 없었음.



시비처방서 발급 방법

5. 28. 삼다일보 13

(삼다일보: 2026년 5월 28일)

○ 분주한 농민들-4면



5. 28.
삼다일보 4

분주한 농민들 27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한 밭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마늘을 정리하느라 분주하다. 임창덕 기자 kko@samda일보.com

(한라일보: 2026년 5월 28일)

○ 제주시 작업 중 부상 잇따라...2명 중상-4면

제주시 작업 중 부상 잇따라... 2명 중상

제주에서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이는 등 부상 사고가 잇따랐다.

2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7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계장에서 60대 남성 A씨의 손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 사고로 우측 엄지손가락이 5.28절단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라일보 4

술이 불가능해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12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과수원에서는 50대 남성 B씨가 전기톱에 의해 손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톱에 의해 손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